

창조성은 너와 나 둘 사이에 있다



둘의 힘

조슈아 울프 생크 지음, 박중서 옮김

저자이자 큐레이터인 조슈아 울프 생크는 "창조성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에 그가 펴낸 '둘의 힘'은 창조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저자는 창조성이란 특별한 한 사람의 내부에 숨어 있는 재능이 아니라 두 사람의 깊은 관계에서 발현된다고 본다. 근대 서구 문화에서의 '고독한 천재'에 대한 집착이 뿌리 깊게 박힌 탓에 '2인조'의 긍정성을 간과하기 쉽다는 것이다.

저자는 '둘의 힘'은 복잡성 이론과도 유사하다고 덧붙인다. 모든 유기적인 생명체와 인공적인 작업물의 혁신의 성과는 두 힘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본 패턴으로 한다. 고전적이고 낭만적인 '고독한 천재'의 신화를 넘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책에는 에밀리 디킨슨과 헨팅턴 디킨슨, 시몬 드 보부아르와 장폴 사르트르, 존 레논과 폴 매카트니, 워런 버핏과 찰리 멩거,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 등의 사례가 실려 있다.

모든 사람은 '연계' 다시 말해 '파트너십'을 원한다.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일의 차원에서든 마찬가지다. 나를 더 업그레이드하고 충분히 실현할 파트너를 원한다.

그렇다면 의미있는 1대 1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는 때로 삶을 바꿔놓을 누군가를 만난다. 저자는 창조적 관계부터 소멸, 혹은 사후에 이르기까지 전체 매커니즘을 보여준다.



1부 '만남'은 창조적인 한쌍이 만나는 다양한 방식을 공식으로 보여준다. 먼저 비슷한 관심과 욕구를 지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공간'이 존재한다. 여기

에 비슷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개입이 있다. 서로 끌리는 두 사람은 유사성이 있는 동시에 전혀 다른 면모를 지닌다.

2부 '합류'는 서로 끌리게 된 한 쌍이 어떻게 '의미 있고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지 조명한다. 나와 너가 만나 '우리'라는 절대적인 존재로 고양되는 메커니즘을 볼 수 있다.

3부 '변증법'은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다. 대개의 경우 한 쌍에는 스타의 역할과 배후 역할이 있다. 누군가 느슨하게 틀을 구상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내용을 채우거나 다듬는다. 많은 경우 이런 역할은 고정된 게 아니라 관계가 발전하면서 자리바꿈이 일어나기도 한다.

4부 '거리'에서는 서로 간의 거리를 통해 관계의 증폭과 심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5부 '무한한 경기'는 겉으로 보기에 적대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한 쌍들을 다룬다. 특히 창조적인 한 쌍의 역할은 단순한 갑을 관계보다 매우 역동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마지막 6부는 관계의 '중단'에 초점을 맞췄다. 창조적인 2인조의 파국, 즉 결말을 다루는데 흥미로운 부분이 없지 않다. 저자는 심지어 한 쌍 중 한 명이 사망을 한 경



우에도 관계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두 사람이 공통의 정체성을 발달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자는 "심지어 불행한 결말조차도 창조적 교류의 마지막 교훈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그 교훈이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뒤섞이고 나면, 우리는 (더 좋은 더 나쁜 것) 뭔가 다른 존재가 된다는 점이다. 일단 들어서고 나가면,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반비·2만2000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숨겨진 미래**=글로벌한 대세였던 냉전의 흐름을 거스르고자 했던 일군의 사람들, 특히나 그들이 가졌던 크고 작은 생각의 차이들이 만들어낸 반전의 장면들을 한데 모은 책이다.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뒤틀린 질서에 어떻게든 출구를 내보려 했던 사람들, 혹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질서의 괴물 같은 폭력성을 증명했던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고자 한다.

〈푸른역사·2만5000원〉

▲**휴식의 철학**=이 책은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몸을 생각할 때는 자연의 가르침을 먼저 깨달아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은이 애니 페이스 콜은 "확실하게 말하지만, 자연이 허락하는 휴식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그곳에 있는 것이다"고 강조한다. 이 부분에서 '그저 그곳에 있는 것'이라는 말이 바로 노장사상의 가르침과 닿아있는 지점이다. 이 책은 우리가 왜 몸을 관리해야 하는지, 또 몸과 정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책읽는귀족·1만6000원〉

▲**나 자신을 알라**(철학하는 철학사 2)=현대 독일 철학을 대표하는 리하르트 다비트 프래히트가 펴낸 '철학하는 철학사' 3부작의 두번째 편이다. 이 시리즈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철학사를 집필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연작 기획이다. 전작 '세상을 알라'를 통해 새로운 철학사에 대한 깊은 고민을 보여준 저자는 두 번째 책에서도 서양 철학의 발전 과정을



당대의 사회, 경제, 문화의 측면에서 기술한다. 〈열린책들·2만5000원〉

▲**휴가**=고딕 소설, 그중에서도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발판과 대저택을 배경으로 하는 남부 고딕 소설의 대표 작가이자 현대 미국 문단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조이스 캐럴 오츠의 대표적인 소설집이다. 비밀을 간직한 어린아이, 낯선 남자에게 모델 제안을 받는 소녀 등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열여섯 편의 단편이 수록돼 있다. 표제작 '휴가'는 열세 살 우정의 미묘한 어긋남, 집요한 호기심이 부른 비극을 그렸다. 〈민음사·1만6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땀글왕 공손 선생님**=초등학교 3학년 하연이의 새 담임 선생님은 부리부리한 눈, 거무스름한 수염, 두꺼운 공손 턱분에 '공손 선생님'으로 불린다. 하연이는 '열 반 선생님은 엄청 예쁘고 상냥해 보이던데, 나도 열 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비밀 일기를 쓴다. 실수로 학교 일기가 아닌 비밀 일기를 제출해 담임 선생님에 대한 속마음을 들린 버린 하연이는 공손 선생님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다. 〈소원나무·1만2000원〉



▲**준서네 이사하는 날**=흔히 어른들은 이사는 '손 없는 날'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우리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이삿날 풍습을 기억하고, 우리의 열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되돌아본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준서네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이삿날 풍습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이삿날에 이웃과 팔 시루떡을 나누는 일처럼 우리 전통문화에는 되살려 쓰거나, 또는 오늘날에 맞게 알맞게 고쳐 쓰면 좋을 가치 있는 문화를 소개한다. 〈푸른숲주니어·1만1000원〉



▲**열매 하나**=인간이 필요한 것과 선호하는 것들을 극대화하고, 나머지는 없애버리는 현대 사회를 주인공 성과 마을 사람들을 통해 보여준다. 특히 GMO 등 식량 증대와 기업 이윤 극대화를 이유로 한 가지 곡식만을 대량으로 심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질병과 그에 대비하기 위해 더 강한 살충제와 화학비료를 만들어야만 하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무너져가는 생태계의 경고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파란자전거·1만3900원〉



'2인조' 혹은 '한 쌍'은 가장 깊이 있지만 동시에 유동적이고 유연한 관계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사람은 외롭고 결핍돼 있다. 세 사람은 너무 안정적이어서 창조성이 발현되기 어렵다. 반면 두 사람은 충분히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면서도 역동적이라는 것이다.

창조적 성과는 파트너십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현실에서는 쉽게 달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서 '주목할 만한 책'으로 선정된 '링컨의 우울증'의

붓다·체 게바라 ... 스스로 운명 개척한 15명 이야기

태양은 아침에 뜨는 별이다

장석주 지음



'우리 모두는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에는 현실 불가능한 꿈을 간직하자.'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쿠바 혁명의 최전선에 선 후 볼리비아에서 게릴라 전을 진행하다 붙잡혀 처형당한 '강철 영혼' 혁명가 체 게바라의 이 말은 많은 이들에게 각인돼 있다. 시인 장석주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쿠바 아바나에서 그의 흔적을 좇은 그는 사르트르가 지성과 저항 정신을 두루 갖춘 '완전한 사람'이라 평했던 체 게바라의 삶을 떠올리며 심장이 빨라

집을 느낀다.

장석주 시인의 신작 '태양은 아침에 뜨는 별이다'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성인

(聖人), 작가, 혁명가, 사상가, 화가, 기업가 등 15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첫 인물인 '스스로 깨달은 자' 붓다를 비롯해 책에 등장하는 이들은 모두 저자가 방향하던 시절, 영혼의 등대가 돼 '무런 영혼을 단단히 다져준 인물들'이다. 시인은 그들의 삶을 접하며 "내 영혼은 처음엔 걷고, 그 다음엔 뛰고 나중엔 도약하며 춤을 추었다"고 고백한다.

도시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반대하며 시골로 들어가 아내 헬렌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한 스포츠 니어링은 "나무처럼 높은

이상을 갖고 걸었고, 산처럼 강하게 타락한 무리들과 타협하지 않고 살았"고 100세에 스스로 곡기를 끊고 자발적 죽음을 맞았다.

책에는 그밖에 '가난조차 호사로 느낀 지중해의 영혼' 알베르 카뮈, '고독한 구도자' 프란츠 카프카, '자기 자신을 출산한 여자' 프리다 칼로, '바람구두를 신고 방랑한 천재 시인' 아르튀르 랭보, '죽음을 뛰어넘는 위대한 삶을 실현한' 레프 톨스토이,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고 말하는 스티브 잡스, 프리드리히 니체, 노자, 공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몬 드 보부아르, 허먼 멜빌의 이야기를 담았다. 〈현암사·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짬이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 욕기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미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